

구례군, 골목상권 살리는 6명의 여전사와 업무협약식



장선경·김정숙·이채령·이형란·김선아·신나리 대표 구례읍 힙(hip)한 골목길 만들기 위한 정보교환 등 추구

구례군은 2019년부터 구례읍 봉동리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생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6명의 여전사가 있어서 화제다. 구례군도시재생센터는 매리홀(장선경), 한옥에살다(김정숙), 스윙(이채령), 모란상점(이형란), 선씨씨가게(김선아), 리피&꼬물꼬물(신나리) 6개소 대표들과 5월25일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힘찬 출발하였다. 이번 협약

은 지속가능한 구례읍 힙(hip)한 골목길 만들기 위한 정보교환과 협력, 상인과 갈등 조정과 해소, 블로그, SNS 홍보와 자료 제공 등으로 활기찬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구례읍 골목상권을 살리고 있는 이들은 구례군 발전을 위하여 최근에 귀향·귀촌하였다. 골목길 활성화를 참여주체로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겠다는 의욕이 넘쳤다. 여섯의 대표들은 모두 여자인 것이 특징이며 장점이다. 구례읍 원도심 골목상권 살리는 '여전사'로 애칭되고 있다. 매리홀 장선경 대표는 "구례읍은 임대료가

싸고 텃세가 없으며 터미널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잘 정비되어 역동적이라 장사가 잘돼서 매력적이다"라고 하였다. 선씨씨가게 김선아 대표는 여수, 순천 등 보따리 장사를 하며 키운 안목과 역량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좋은 상품을 싸게 공급한다. 모란상점은 예술공간이다. 김정숙 대표가 운영하는 숙소는 한옥이지만 정원은 작은 유럽식이다. 스윙과 리피카페는 신세대들의 해방공간이요 휴식처로 사랑받는다. 여전사를 지원하고 육성한 전희정 수석코디네이터는 "협약을 계기로 여전사 라인을 구축하여 홍보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정보교환과 애로사항 해소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례읍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 신기술 보급

농업농촌 고령화 대응 못자리 노동력·시간 대폭 감소

화순군은 벼농사에서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드는 못자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화순군은 이서면 아사리 일원에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인 '벼 육묘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장치를 설치하였다. 화순군에 따르면 본 기계는 레일에 육묘상

자를 올려놓으면 자동 이송되어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므로, 일일이 인력으로 모판을 옮겨 나르던 관행 대비 노동력과 시간에서 60% 이상 절감된다고 밝혔다. 화순농협 관계자는 "모판 치상작업과 출하작업이 훨씬 수월해졌다"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 도입으로 농작업 생력화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농사 기계



화율이 93%로 높은 수준이지만 못자리에서만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생력화 농기계 및 재배기술을 적극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천년 나주 역사 품은 문화재 밤축제 개최

내달 6월 2일~4일·8夜 테마로 불거리·즐길거리·먹거리 풍성

전라도의 중심 나주 천년의 역사를 품은 문화재 밤거리 축제가 6월 2일 개막한다. 작은 서울, '소경'으로 불리었던 나주 원도심 문화재를 야간에도 개방해 초 여름밤 고즈넉한 낭만을 선사한다. 나주시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원도심 읍성권 일원에서 올해로 3회째 맞는 '나주문화재 야행(夜行), 가자! 조선의 도시 천년의 시간여행'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야행은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여행 8夜'를 주제로 낮밤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 행사다. 축제 테마인 '8夜'는 △밤에 비취보는 문화재 '야경'(夜景)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공연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시'(夜市)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으로 구성

됐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6월 2일 오후 7시 서성문, 정수루, 금성관 일대에서 '역단편석 난장판'을 테마로 정수루 타고, 개막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축제 기간 읍성 돌담길 투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로컬푸드·먹거리 판매, 거리·공연 등이 사흘간 축제 현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나주읍성 수문장 교대식, 포도대장과 순라군 야행, 댄스·버스킹·게릴라콘서트, 나주목 사신 전시, 유·무형 문화재 명인전 등 불거리와 조선 보부상, 다듬이 소리, 사매기 골동품 판매 등 이색적인 체험이 진행된다. 이명구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나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천년 나주 역사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축제를 통해 원도심 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곡성군, 2023년산 체리 출하 시작

공선출하로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 전략

곡성군이 26일부터 체리 수확에 들어간다. 곡성군은 2017년부터 체리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해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육성 초기에 식재됐던 과원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매년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체리 재배 규모는 91농가, 34ha지만 2026년까지 6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선출하체계를 정착해 균일화와 규모화를 추구하며, 전국 최고의 체리산지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저비용 체리 전용 간이 비가림시설 규격 3종을 자체 개발해 수확기에 과



원에 시설을 보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간이 비가림시설은 수확 기간 동안 비가 내릴 경우 발생하는 열과 피해를 줄여주고 당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수확 시점에는 지면에 다공질 필름을 덮어 착색률을 높이는 등 품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 체리와는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당도 17브릭스 이상, 착색도 70% 이상, 3단계의 크기 선별기준 등을 정해 출하하고 있다. 군과 농가의 꾸준한 노력으로 곡성산 체리는 대형마트 관계자 및 가락시장 중개인들로부터 좋은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군에서는 더 나아가 체리의 품질향상과 안정적 출하를 위해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이상 기상으로 인해 병해 피해가 발생해 착과량이 감소돼 아쉬운 상황이다. 체리는 다소 재배가 어려운 작물이지만, 앞으로 병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보급하고 기술교육을 강화해 농가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	